

2026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전주 양현고등학교 내 15시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장은성 기자

피지컬AI 융합공학과 설립

전북대, AI·로봇·소재·에너지 물리적 AI 기술 융합교육 체계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국내 최초로 피지컬AI(Physical AI) 분야의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가 공모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국가 시범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관련 융·복합 교육을 담당할 대학원 과정의 '피지컬AI 융합공학과'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북대는 피지컬AI의 교육·연구·실증·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완성, 명실상부 대한민국 피지컬AI의 본거지로 자리매김했다.

피지컬AI 융합공학과 설립은 AI·로봇·소재·에너지 등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국내 최초의 대학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북대는 올해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국가 시범사업 주관기관에 선정, 공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로봇처럼 인식하고 제어하는 'K-다크팩토리' 모델을 제시했다.

총 사업비 389억원(국비 219억원 포함)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교내 1,000평 규모의 로봇 실증공간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5만5,000평(약 18만㎡) 규모의 '피지컬AI 전용캠퍼스'를



전북대학교 전경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건립해 현대자동차, 네이버, SKT, 리벨리온 등과 협력하는 세계적 산학연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카이스트·성균관대와 함께 국내 최초로 피지컬AI 리빙랩(Living Lab)을 공동 운영하며, 학생들이 실제 산업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검증랩(Test Lab)에서는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 스마트 제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재현해 수요기업의 기술 검증과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기반 위에서 전북대는 교수 41명, 연구원 491명 등 국내 532명의

연구진과 네이버클라우드, 현대자동차, SK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초대형 컨소시엄을 구축, 피지컬AI 생태계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국내 최초의 피지컬AI 융합공학과 설립으로 AI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수 교수진을 확충하고, 산학연이 함께하는 실증형 교육으로 대한민국 AI 주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하모니로 하나되는 교육가족, 올림을 노래하다’

전북교육청 연합합창제,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합창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술적 소통을 확대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 음악의 기쁨과 감동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어울림과 올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는 전북교육청 교육가

축합창단과 10개 교육지원청 학부모합창단 등 모두 11개팀이 참여해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연합합창제는 전북 교육가족이 서로의 목소리를 맞추며 하나가 되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노래로 마음을 잇는 교육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전북 예술교육의 새로운 울림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남권-경남권 유니온 IR 운영... 투자 생태계 확대

전북대, 'JBNU-GNU 유니온 IR' 성료... 12개 투자사 참여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은 지난 11~12일 양일간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에서 'JBNU-GNU 유니온 I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호남권(전북대학교)-경남권(경상국립대학교) 공동 투자 유치의 장으로 지역적 한계로 인한 투자자 접근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권역별 투자 인프라 교류 및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의 '2025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 5개사, '2025년 창업중심대학사업' 수혜기업 9개사,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지원단의 '2025년 창업중심대학사업' 수혜기

업 9개사 등 총 23개 기업이 참가해 각 기업의 사업 모델을 피칭하고, 1:1 창업 관련 상담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토크콘서트도 진행했다.

호남권 창업중심대는 공동투자 프로그램으로 지난 1차 Consulting IR 프로그램에서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 및 1:1 집중 멘토링을 진행했다.

또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심사역 전문 멘토링 및 IR 자료 고도화를 후속 지원, 2차 'AI(Accelerating IR) 프로그램'에서는 참여기업 총 8개사가 투자확약서(투자 확약 규모 10억)를 체결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2026학년도 수능 이모저모

수험장 착각부터 중도포기까지 ‘다사다난’

올해도 어김없이 '시험장 착오'... 경찰 수송
전북지역 수능 결시율, 작년보다 소폭 줄어
중압감 때문인지 수험생 응급상황도 다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된 13일 전북에서는 시험장을 착각해 경찰이 긴급 수송을 돕거나 갑작스런 이상 증세로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여기가 아니네”... 시험장 착각에 순찰차로 긴급 이동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경 수험생 A양은 수능 응시를 위해 전주시 덕진구의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A양의 시험장은 전북대학교 사대부고로 가선 안 됐다. 본래 시험장은 이름이 비슷한 '전주대학교 사대부고'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순찰차를 통해 약 7.2km 떨어진 전주대학교 사대부고로 A양을 수송했다. 또 다른 수험생들은 전북대 사대부고로 가야 했지만 전주대 사대부고로 향하거나 전주고등학교 대신 전라고등학교로 가는 일이 발

생했다.

경찰은 이날 11건의 수험생 수송 지원을 펼쳤다. 수능 관련 112 신고는 모두 8건으로 수송요청 5건, 시험장 오인 2건, 교통불편 1건 등이었다.

▲수능 원주 못하고 중도포기... 전북 평균적으로 10% 결시
전북 지역에선 올해 수능 결시자가 지난해 수능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북 지역의 수능 결시율은 1교시 국어 결시율 8.82%(1569명), 2교시 수학 8.81%(1523명), 3교시 영어 9.20%(1611명), 4교시 한국사 10.14%(1818명)·탐구 11.13%(1943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결시율은 약 1%p 내외의 감소율을 보여 원주자가 소폭 늘어났다.

한 학생은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해 1교시 국어영역마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국어 영역 응시 도중 한 수험생이 호흡 곤란·불안 증세를 호소해 시험 포기자격을 제출하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긴장·컨디션 저하로 응급상황도 다수 발생
수능이라는 중압감 때문인지 여러 수험생이 응급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잦았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도내 시험장 소방안전관리관은 모두 53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다. 두통과 어지럼증 호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통이 13건, 과호흡·불안 등이 6건으로 집계됐다.

익산의 한 시험장에서는 한 수험생이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複視) 증상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소방안전관리관은 해당 수험생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 후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남원에서는 기침이 심한 수험생이 있거나 전주에서도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발생해 모두 예비 시험실로 자리를 옮겨 시험을 치렀다.

/뉴스1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전북교육청 수능 종합상황실서 안정적 수능 시행에 만전 당부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13일 양현고등학교를 찾아 7시 30분부터 30여 분간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유 권한대행은 “수능 시험은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자 성



장의 과정"이라며 "끝까지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수능 시험 이후에도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진로·진학의 모든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설명회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에 설치된 수능 종합상황실도 방문해 안정적 수능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그간의 노력, 결코 헛되지 않아”

전주 영생고서 수험생 격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13일 전주 영생고등학교 정문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직접 만나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른 아침부터 등교하는 수험생 한 명 한 명에게 "지금까지의 노력이 여러분을 충분히 빛나게 하고 있다"며 "긴장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평정심을 유지하길



바랍시다"고 힘을 북돋웠다.

그러면서 "수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우리 교육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인 이 전 총장은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한 후,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천가지 생각·실천 모두 응원한다”

전주교대 찾아 수험생 격려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13일 전주고등학교를 찾아 교사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천 교수는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우리 아이들도 응원 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수능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의 꿈도 응원받아야 하는 날"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천가지 생각과 실천 모두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에 대한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대학입시는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의 소재 지역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우리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불리한 수밖에 없다며, 대입제도는 단편적 '공정'보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 교수는 "수능 중심 전형은 사교



육 의존도가 높고, 단일 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수능 중심 전형은 축소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균형선발과 사회통합전형의 확대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지산학연 간담회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2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2025년 지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산업체, 지자체, 연구기관과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 RISE센터, 전북산업인력공단 등 지산학연 핵심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화 인재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모색 및 졸업생 및 지역청년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산업체 인사와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가능여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다.

조덕현 센터장은 "전북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체, 지자체가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장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료식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재활상담학과는 지난 12일 대학 본관 23층 완주·우석 전망대 W-SKY 23에서 '드림은 캠퍼스-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장애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및 직업평가 프로젝트'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대학생 멘토, 학부모, 교사, 완주군청 교육정책과 및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완주떡메마을 직업훈련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수료식은 개회사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꿈을 찾아서, 우리들이 함께한 시간'이라는 주제의 영상 시청과 수료증 및 상장 수여, 축사와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완주군 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소속 장애 청소년 16명이 참여해 재활상담학과 재학생들이 1:1 멘토로 나서 △조항사 직무 체험 △도서관 사서 보조 △마트 매장 관리 △떡케이크 제조 △슬러시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했다. /장은성 기자